

'26. 8. 7.(금) / 대테러종합상황실

지역별 테러 동향

아 · 태

- 인천공항, 보안검색 걸린 물품 절반은 '화장품·생필품'
 - 7.30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안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여행 포기물품'은 총 119만 3,963개로, 이중 △화장품·생필품류가 61만개(51.8%) △라이터 37만개(31.1%) △문구류·칼·가위 10만개(8.9%) 順이었다고 보도
- 검찰,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前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 7.31 언론은 「정이한」 前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 인지도 상승을 노리고 지인과 피습 자작극을 공모·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검찰이 선거 자유 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
- 파키스탄, 무장단체 반대 시위서 폭탄 테러...14명 사망
 - 8.3 언론은 파키스탄 북서부 스와트 지역의 한 경찰서 앞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를 반대하는 평화시위를 겨냥한 자폭테러가 발생해 민간인과 경찰관 등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다 보도
 - ※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은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소행임을 발표했다 부언

중 동

-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가자지구 평화 오나
 - 8.1 언론은 무장 단체 하마스가 '완전한 무장 해제'에 합의했다며 1987년 창설 이래 하마스가 무기 통제권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구체적인 무장 해제 완료 시한은 정해지지 않아 불씨는 살아있다고 보도
 - ※ 이번 합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며 전쟁이 발발한 지 2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부언

유럽

○ 러시아, '텔레그램 공동 창업자' 테러리스트 명단 등재

- 7.31 언론은 텔레그램 공동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테러 관련 채널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러시아 연방 보안국에 기소됐으며, 테러리스트 명단에도 등재됐다고 보도

○ 러시아, 모스크바 시장 “고급식당 폭탄 공격은 테러행위”

- 8.3 언론은 모스크바 중심부의 고급 이탈리아 식당에서 여성 폭탄 테러범을 포함해 3명이 사망하고, 최소 21명이 다친 폭발 사건을 모스크바 시장이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보도

○ 유럽 범죄조직, SNS로 10대 청소년 청부살인 등에 동원

- 8.4 언론은 유럽에서 범죄조직이 SNS로 10대 청소년을 청부살인에 동원하는 '폭력 서비스' 범죄가 살인을 외주화하는 이른바 '게임화' 수법을 통해 경쟁 조직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 러시아, 흑해 해변 등지 드론 공격으로 다수 민간인 사상

- 8.4 언론은 러시아 흑해 해변·모스크바 외곽 산업단지·흑해 화물선에서 잇따라 드론 공격이 발생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한 12명이 사망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주장한다고 보도

※ 언론은 러시아도 4일 우크라이나 수미市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어린이 2명을 포함 3명이 숨지는 등 상호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부언

아프리카

○ 민주콩고, 무장 세력 때문에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 8.1 언론은 민주콩고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커지고 있다며 발병 지역 상당 부분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장악해 의료진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도

※ 민주콩고는 현재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3,532명, 사망자가 1,556명 집계되었다 부언

역사 속 테러사건

파키스탄 퀘타 병원 테러 사건

- '16. 8. 8,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퀘타 시민병원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 변호사·언론인·의료진 등 약 70여 명이 사망하고 120여 명이 부상



- 1차 표적 공격과 2차 대량공격을 연계한 대표적인 복합테러 사례로, 변호사·의료진 등을 특정 장소로 유인한 후 공격한 계획적 범행으로 구조·의료시설도 주요 공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
- 최근 테러는 대규모 폭발물뿐만 아니라 드론·차량 돌진·온라인 급진화·단독범 테러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을 노려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하려는 본질은 여전히 지속

테러 상식

< 최근 테러의 변화와 대응 원칙 > (Modern Terrorism Trend)

- (개요) 최근(2024~2026년) 발생하는 국제 테러의 전술과 목표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IS 계열 조직을 중심으로 드론, 온라인 급진화, 연쇄 공격, 소프트타겟 공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구분	과거테러	최근 테러
공격 대상	정부기관 군사시설	병원 학교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격 방식	폭발물 납치 중심	총기 폭발물 드론 차량 돌진 복합공격
공격 주체	조직 중심	국제조직 네트워크 단독범 혼재
목적	정치적 요구	사회적 공포 확산과 국가 기능 마비

■ (특징)

- ① 사고 발생 후 구조인력과 시민이 활동하는 시점을 노린 2차 공격이 증가.
- ② SNS와 암호화 메신저를 이용한 온라인 급진화가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
- ③ 드론, 차량, 사제폭발물 등 저비용·고효율 수단을 활용한 복합공격의 확대.

■ (국민행동요령)

- ① 폭발음이나 총성이 들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관계기관의 안내를 따를 것.
- ② 방치된 물건이나 이상행동을 발견하면 112 또는 119에 즉시 신고할 것.
- ③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기보다 공식 발표를 확인하여 추가 혼란을 방지.